

41. 새벽 공기 희미할 때

클레멘타인 곡 / 편곡 : 서혜진

새벽 공기가 희미할 때
삼년동안 기안하는
사랑여 주께 생여
잡담 가온갖 혀울
고감기 의생을 전
세 번 궁다볼 때
에 올

무죄 하신 예수께 서서
목숨포함 까심사 람에 떨 무락 리서 위
잡네 주 혀드느 모 들로 예른
어 의수다 가뒀 모했
네 양오요

만민 들아 만민 들아 너 위 하 여 죽 는 다
베드르로 야 베드르로 야 나 의 의 사 랑 시 시 시 아 아 아
베드르로 야 베드르로 야 나 의 의 사 랑 시 시 시 아 아 아

십자 가를 등 에 지 고 골 고 다 로 가 노 라
일평 생을 따 르 려 던 네 결 심 이 변 했 나
나와 버 리 게 죽 겠 가 다 면 외 립 구 이 내 했 나
날 버 리 고 네 가 가 면 외 립 구 이 내 했 나

5. 주의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는 울음은 온세상이 울음속에 파묻히고 말았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의 사랑 시몬아 십자가를 등에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6. 우리 재건 성도들은 주의 말씀 기쁘게 다시 배반 하지 말고 변치 말고 나가세
우리들은 이제부터 반석같은 믿음을 영원무궁 할때까지 변치 말고 나가세